



**꿀같은 단비** 기나긴 겨울가뭄으로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꿀같은 단비가 내린 22일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허만재 씨 가족이 못자리 설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날 광주, 전남 지역에는 5mm~42mm의 봄비가 내렸다. /위직량기자 jrwi@

## 여수 42mm...해갈 도움

휴일 광주·전남에 해갈에 도움이 되는 단비가 내렸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오후 6시 현재 광주량은 ▲광주 19.5mm ▲여수 거문도 42mm ▲완도 신지 36.5mm ▲장흥 대덕 27mm ▲해남 북일 26mm ▲목포 15mm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2월 들어 광주지

역엔 평년 강수량(1971~2000년, 31.9mm)보다 배가 많은 63.4mm가 내렸다"며 "2월 치고는 많은 비가 내려 겨울 가뭄 해갈에 적지않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오는 27일에도 광주·전남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MB 1년 호남은 춥다

## 지역현안 담보·인맥 몰락 균형발전·탕평 인사 절실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오는 25일 출범 1년을 맞는다. <관련기사 3·4·5면>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여론은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을 기치로 힘차게 출발했던 취임 초기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역민심은 표류하고 있는 광주·전남 현안과 호남 인맥의 몰락, 국가균형발전을 거스르는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촛불집회와 '강부자 인사'로 대변되는 소통의 부재,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미숙한 정책 운용, 역주행하는 대북 관계 등으로 이명박 정부의 1년은 희망보다는 불안이 가중됐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타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호남권에 대한 보다 현실

적인 지원과, 탕평 인사 등을 통해 국민 화합을 이끌어 경제 위기 극복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현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호남 고속철도 2012년 완공은 국토해양부가 오송~광주 구간 개통을 오는 2014년으로 잠정 결정하면서 사실상 '반쪽 공약'으로 전락하게 될 전망이다. 또, 전남의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는 6개 사업지구 가운데 3분의 1인 2개 지구만 지난 19일 아시아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영산강 간척지를 시범지역 이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어렵사리 유치한 외국인 투자지역 내에 대규모 첨단 유리온실단지 조성하

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전남도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남도의 숙원 사업인 F1(포클러인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 국회 본회의 통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나타나고 있는 호남 인맥의 몰락은 지역 민심의 반발을 촉발시키고 있다. 장·차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핵심 권력기관 수장 가운데서 지역 인맥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공기업과 정부 산하단체에 포진한 지역 인맥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인위적인 교체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줄줄이 자리를 떠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에는 과감한 탕평 인사 등으로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호남권 등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 국민 화합을 이끌어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오는 26일 입학 25년 만에 서울대 졸업생인 가수 현자가 교문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 '현자의 봄'

### 광주 출신 밤무대 가수 25년만에 서울대 졸업 아버지 사업 실패 학업 중단... 포기않고 꿈 이뤄

"못 다한 대학공부를 뒤늦게나마 마칠 수 있어 가슴 벅차고 행복합니다. 졸업장 받을 때 많이 울 것 같아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25년 전 대학 1년 만에 공부를 그만뒀던 광주출신 밤무대 가수 현자(본명 임미경·45)가 오는 26일 서울대에서 '눈물의 졸업장'을 받는다. 현자가 태어난 곳은 광주시 남구 월산동. 아버지 사업 때문에 세살 때 부산으로 이사했지만 탯자리인 '326-10'번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2남2녀 중 막내인 현자는 아버지가 건설업으로 성공해 부유했고 학업성적도 우수했다. 기타를 치고 노래까지 잘 불러 단연 인기 최고였다. 그러나 그 2배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좌절이 시작됐다. 식구들은 빚 정리 후 남은 200만 원을 들고 서울 종암동의 한 평짜리 쪽방이 딸린 가게로 옮겨 과거를 구우며 생계를 간신히 이었다. "대학 입학은 생각도 못했는데 학교 측의 권유로 서울대 아동가족학과에 지원해 합격했어요. 주변의 도움으로 등록금은 마련했지만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부란 사치였어요" 결국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뒤 분식집·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하지만, 가족의 생활비 감당이 너무 벅차 밤무대에서 노래를 시작했다. 그동안 가



東方神起

3월28일 광주...오늘 오후 7시 티켓 오픈

광주일보 (062-220-0541), 인터파크, 티켓링크 光州日報社

**3·1절 전국마라톤 D-6**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경 私教育이 없는 나라를 追求하는 대광여고 축**  
2009 대학입학을 대비하여 신입생의 본교 입학을 환영합니다

**21C 영국의 殿堂·사범시험의 鎚案**

서울대학교 9명 합격 (총합계 442명)  
사립과학대(사회과학계열) 3명, 동양대(자연과학계열) 2명, 연세대(자연과학계열) 1명, 고려대(자연과학계열) 1명, 이화여대(자연과학계열) 1명, 한양대(자연과학계열) 1명, 건국대(자연과학계열) 1명, 공과대(자연과학계열) 1명, 이화여대(자연과학계열) 1명

총합계 10명 합격  
수원대 3명 합격  
수원대 28명 합격  
수원대 46명 합격

고려대학교 6명 합격  
고려대학교 10명 합격

이화여자대학교 5명 합격  
서울여자대학교 1명 합격  
전남대학교 148명 합격

총합계 187명 합격

제50회 사범시험 2명 합격 (총합계 2명)  
행정고시 1명 합격 (총합계 1명)

대광여고등학교 · 대광여고등학교 중등분원